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2월 11일(일) 총 2매		
담당 부서	해양환경과	담당자	• 해양생태지질팀장 • 담당자	최희수 ☎440-7881 최문진 ☎440-788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눈 앞에서 보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체험행사 열어
 - 3일간, 중학생 대상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체험행사’ 개최
 -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및 생태관광지역의 생태지질가치 체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관내 중학생 16명을 대상으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체험행사’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 일원에서 인천 섬에 대한 체험 활동이 어려운 내륙 학생들에게 새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지질공원 고유의 체험 프로그램이다.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및 생태관광지역의 지질, 생태환경 가치에 관심이 있는 참가신청 학생들에게 제공됐다.

학생들은 ▲백령도 진촌리 현무암(지질명소) 및 하늬해변 물범 서식지(국가생태관광지역) ▲사곶해변 ▲대청도 농여-미아해변 클린지오토레일 ▲옥죽동 해안사구 등을 방문했으며, 지질 및 생태환경과 섬 문화에 대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은 우수한

지질학적 가치와 생태관광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지질공원과 생태관광지역의 가치를 체험할수 있는 곳”라며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인천 섬과 해양환경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지속적인 체험활동을 통한 섬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지역 환경에 이해도가 높은 주민들로 구성된 지질공원 해설사를 양성해 탐방객들에게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질공원 해설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https://bdgoepark.kr>)에 접속해 ‘방문자 참여’ 게시판의 ‘해설 신청’ 탭을 작성해 신청하거나, 지질명소에 설치돼 있는 안내소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모든 해설은 무료다.

